

2017년 1/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 요 약 】

□ 2017년 1/4분기 경기전망

- 부산지역 1/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1'을 기록함
- 설 명절과 졸업·입학 시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수출 및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컨트론타워 부재의 이중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 조정에 따른 퇴직 및 고용불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 김영란법 시행과 가성비위주 소비성향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심리위축이 가중 되면서 지역 소매유통경기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동절기 내방 고객수 감소와 더불어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저가상품 비중 확대로 객단가 하락이 예상되며, 정부의 소비진작책 부재로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판촉 효과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할인행사와 광고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

□ 업태별 전망

- **백화점(79)**은 설 명절 특수와 연 초 졸업 및 입학 시즌에 따른 특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비 진작책 부재,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과 가성비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저가 상품 비중 확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겨울철 내방고객 감소 등 불안요인에 따라 부진 전망
- **대형할인마트(68)**는 AI사태에 따른 계란 및 육류 가격의 상승과 지난해 태풍 및 여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주력 품목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감소와 더불어 업태 내 경쟁 지속으로 부진 전망
- **슈퍼마켓(70)**은 편의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 업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시즌에도 불구하고 업황부진의 지속으로 타 경쟁업태에 비해 광고, 덤 증정행사, 배달서비스 등의 판촉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부진 전망
- **편의점(84)**은 지속적인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도시락, 1인용 생필품의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 내 편의점 신규 점포 증가에 따른 업태 내 경쟁심화와 과도한 행사확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익성하락 우려

□ 경영지표 전망

- 내방 고객 감소, 명절 선물세트 저가 비중 확대 및 가성비 위주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객단가 하락으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와 판촉비를 포함한 총비용의 변화는 없어 순이익 감소 전망

매출액	59→71	고객수	56→71	객단가	60→77	순이익	56→67
할인행사	98→96	광고확대	98→93	판촉강화	98→94	총비용	100→100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2
1. 경기전망	2
2. 업태별 전망	3
3. 경영지표 전망	4
4. 실적요인	5
5. 경영애로요인	6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경기상황 및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소매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계획 및 경제운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2. 조사방법 및 대상

- 조사방법 : 대한상의 직접조사(전화/팩스) 후 집계 파일 수령
- 조사대상 : 부산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 188개체

3. 조사기간

- 대한상의 조사 및 지역별 데이터 정리 : 2016년 12월 5일 ~ 12월 19일
- 부산지역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7년 1월 5일 ~ 1월 13일

4. 조사지표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

-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체감경기를 조사,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지수(100)를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text{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 \frac{\text{호전(증가)표시 업체 수} - \text{악화(감소)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기준지수=100, 지수 100 초과: 경기호전, 지수 100 미만: 경기악화

5. 유의사항

- 각각의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으며,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그 합이 '10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Ⅱ. 조사결과

1. 경기전망

□ 2017년 1/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71'

○ 2015년 4/4분기 '95'를 기록한 이래 6분기 연속 기준지수(100)미만을 기록

- 설 명절과 졸업·입학 시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컨트롤타워 부재의 이중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 및 고용불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가처분소득의 감소, 김영란법 시행과 가성비위주 소비성향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심리위축이 가중되면서 지역 소매유통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설 명절 특수기간(설 전 10일)의 매출은 전년대비 '감소' 전망 (백화점·대형마트 기준)

○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로 지역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명절특수 기대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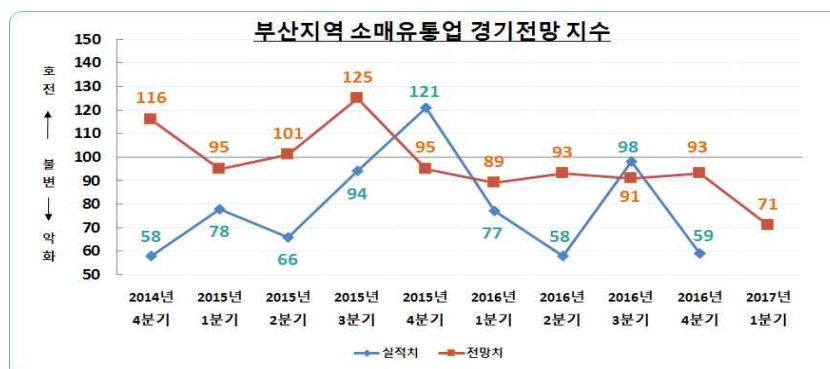
- 지역소매유통업계의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상품 비중을 크게 확대(2016년 70.8% → 2017년 86.0%(15.2%p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고가의 축산물, 건강식품 보다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저가품목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배달서비스 강화와 상품권 증정 등의 기획행사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016년 4/4분기 실적지수는 '59'로 나타남

○ 2016년 3/4분기 실적지수 '98' 대비 39포인트 감소

- 이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프로모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한 소비감소와 편의점을 위시로 한 지역 내 점포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익성 악화, 태풍과 이상기온, AI사태에 따른 신선식품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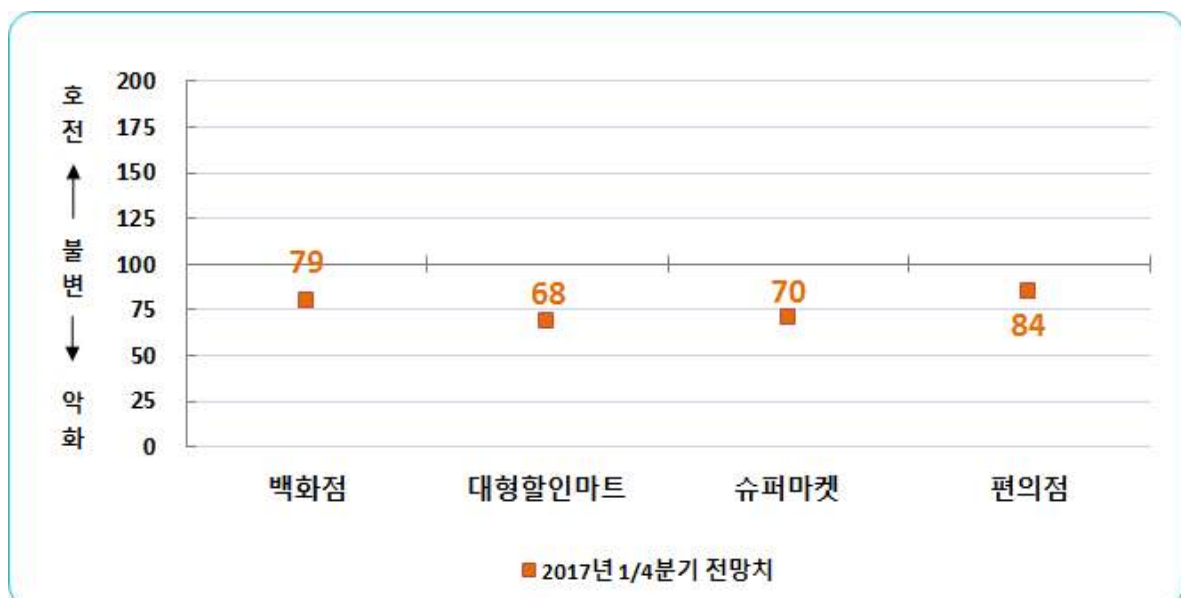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 】



2. 업태별 전망

- 업태별 전망을 살펴보면, 백화점(79), 대형할인마트(68), 슈퍼마켓(70), 그리고 편의점(84) 등 모든 업태에서 기준지수 100 미만을 기록
- 백화점(79)은 설 명절 특수와 연 초 졸업 및 입학 시즌에 따른 특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비 진작책 부재,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과 가성비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저가 상품 비중 확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동절기 내방고객 감소가 예상되는 등 불안요인에 따라 부진 전망
 - 대형할인마트(68)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분야의 비중이 높은 대형할인마트는 AI 사태에 따른 계란 및 육류 가격의 상승과 지난해 태풍 및 여름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주력 품목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감소와 더불어 업태 내 경쟁 심화로 부진 전망
 - 슈퍼마켓(70)은 편의점 및 대형할인마트 등 업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 시즌에도 불구하고 업황부진의 지속으로 타 경쟁업태에 비해 광고, 덤 증정행사, 배달 서비스 등의 판촉활동 축소로 부진 전망
 - 편의점(84)은 지속적인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도시락, 1인용 생필품의 소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 내 편의점 신규 점포 증가에 따른 업태 내 경쟁심화와 과도한 행사확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익성하락 우려

【 업태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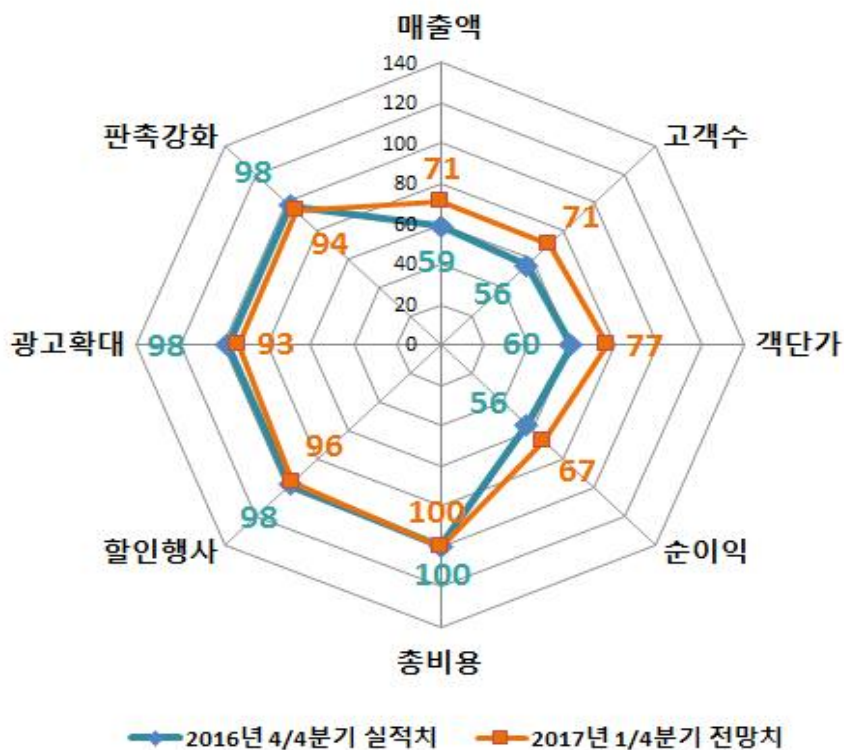


3. 경영지표 전망

□ 내방 고객 수 감소와 객단가 하락에 따른 매출부진 지속

- 경영지표별로 살펴보면, 주요 지표인 매출액(71), 고객 수(71), 객단가(77), 순이익(67)등 모든 전망치가 기준지수 100을 하회하고 있어 연 초부터 경영활동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소비심리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따라 내방 고객수의 감소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세트 등에서 저가상품 비중이 확대되어 객단가까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돼 매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할인행사(96), 광고확대(93), 그리고 판촉강화(94) 등의 경영지표 역시 기준지수 100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된 침체로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판촉 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의 부족과 경제컨트롤타워 부재 등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불안정으로 판촉 효과의 시너지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 경영지표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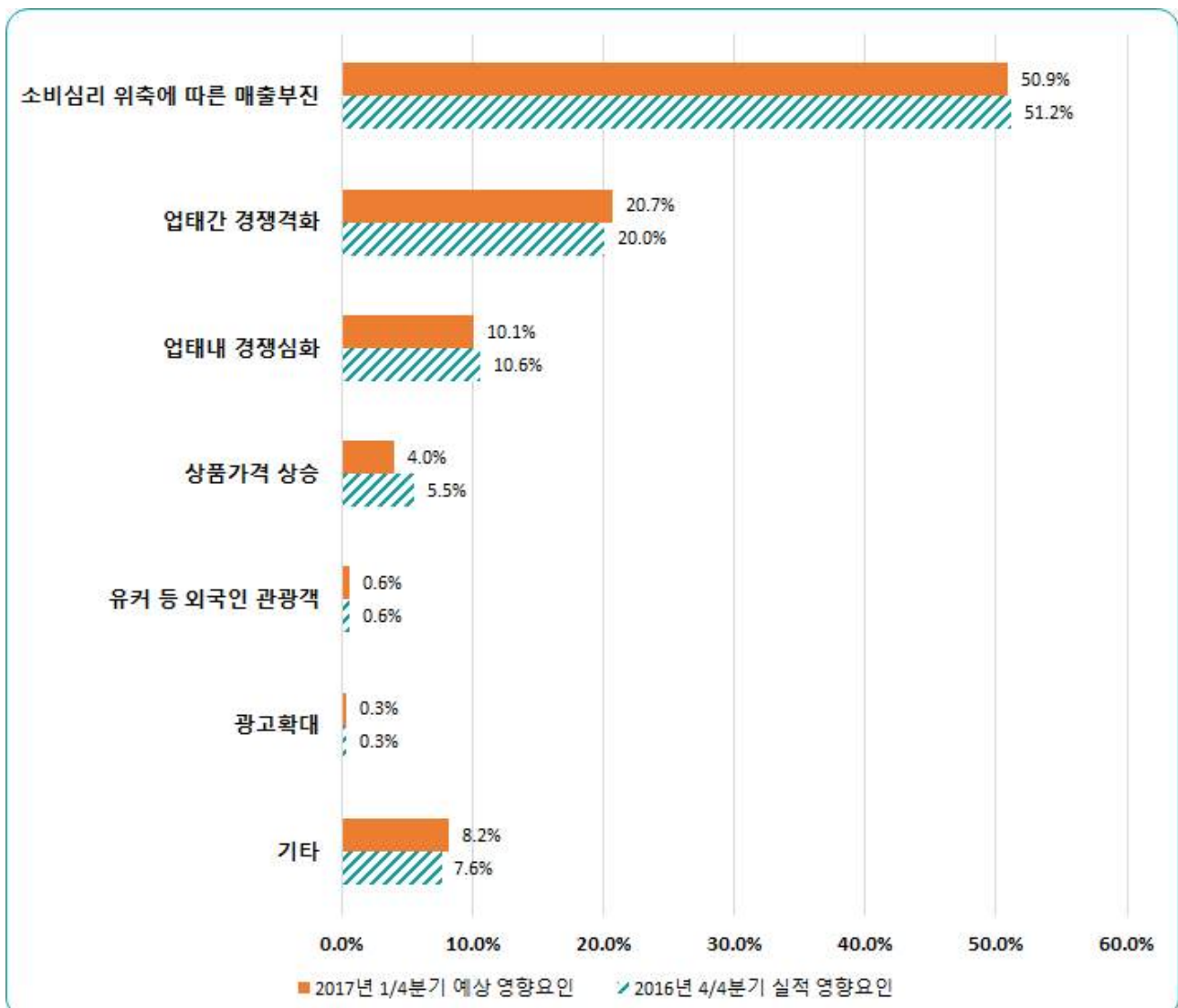
4. 실적요인

□ 2017년 1/4분기 예상되는 영향요인으로는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매출부진(50.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산지역 경제는 지역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업황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인해 소비심리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부정적인 실적요인은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매출부진(50.9%)에 이어 업태간 경쟁격화(20.7%), 업태내 경쟁심화(10.1%)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실적요인인 판촉 및 할인행사(5.2%),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0.6%), 광고확대(0.3%)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지속된 부진으로 지역 업계 전반의 광고 및 판촉 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영향요인 】



5. 경영애로요인

□ 2017년 1/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수익성 하락(46.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설 특수에도 불구하고 내방 고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절 선물세트 저가 비중 확대와 가성비 위주의 소비성향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객단가 하락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인건비와 판촉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수익성 하락(46.0%)에 이어, 유통관련 규제강화(12.8%), 자금사정 악화(11.4%), 인력부족(9.0%), 정부정책의 비일관성(8.0%), 노사문제(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영애로요인 】

